교의학과 설교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Dogmatics and Preaching

이 환 봉

고신대학교 교수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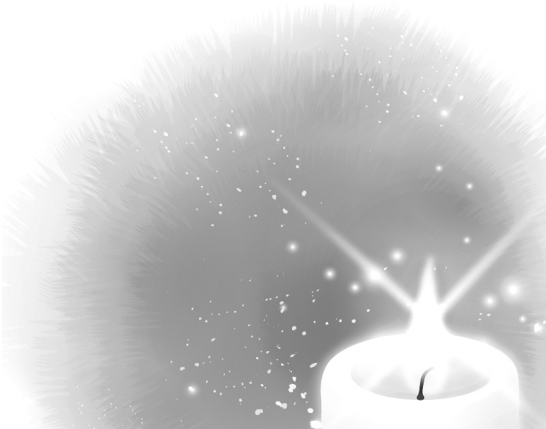
들어가는 말 | 333

1. 현대 교회의 신학과 설교의 위기 | 334

2. 교의학과 설교의 관계 | 339

3. 교리설교의 실제와 전략 | 346

나가는 말 | 354



요약

교의학과 설교의 관계

오늘 우리의 설교와 신학의 위기는 목회자의 "신학 없는 설교"와 신학자의 "설교 없는 신학"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개혁주의 교회의 역사적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학과 설교의 통일성과 연속성이 깨어짐으로써 오늘 우리 교회의 혼란과 위기는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신학 없는 진보주의 강단은 경험과 이성을 강조하여 신앙의 본질적 규범과 원리를 상실해 가고, 신학 없는 복음주의 강단도 감정과 정서를 앞세우면서 신앙의 핵심적 강조를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신학교의 연구와 교육은 목회현장의 실제적 문제를 간과하고 교회를 위한 신학의 실천적 적용을 게을리 함으로써 이미 신학적 리더십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점차 교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교회와 신학교의 위기 속에서 교의학자와 설교자는 상보적인 호혜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힘써 견지해나가야 한다. 교의학은 설교를 감독하고

보호해야 하며, 설교는 교의학의 추진력과 평가기준이 되어야 한다. 교회를 위하여 교의학과 설교는 항상 서로를 어렵게 만들면서도 건강하게 세워주는 동반자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할 때, 교회 강단의 권위와 능력이 회복될 수 있고 신학교의 교육과 연구가 쇄신될 수 있을 것이다. 교의학과 설교의 올바른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야 말로 오늘 우리의 교회와 신학교를 새롭게 하는 근원적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교의학과 설교의 상보적 관계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교리설교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반성이 필요하다. 먼저 개혁교회의 오래된 전통과 소중한 유산이었던 개혁자들의 교리설교의 유형과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 져야 한다. 동시에 현실 적합성을 가진 교리설교를 위해서 효율적인 작성 방법의 훈련과 전달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와 노력도 필요하다. 교리설교의 새로운 부흥은 신학과 설교 그리고 신학교와 교회의 실제적인 융합을 실현함으로써 현대교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The Relationship between Dogmatics and Preaching

주요어
교의학, 설교, 신학의 통일성, 교리설교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Dogmatics and Preaching

Prof. Dr. Hwan-Bong Lee

Crisis in today's preaching and theology stems from the preacher's "preaching without theology" and the theologian's "theology without preaching". Confusion and crisis in today's church seem to be ever increasing as the unity and continuity between theology and preaching, functioning as the historical tradition in the Reformed church, break down into pieces. The liberal pulpit without theology, while emphasizing experience and reason, have lost the essential rule and principle of faith. The evangelical pulpit without theology, while emphasizing experience, have also lost the essential points of faith. Furthermore, theological seminaries in their education and research largely have ignored practical points in the pastoral world and have been very slow in applying teaching into practical need for the church. As a result, the seminaries already have lost their leadership for the church and distance between the two parties seems be increasing.

Facing with such crisis between them, dogmaticians and preachers should recover their mutual relationship and strive maintain it. Domatics should be supervising and protecting

preaching while preaching should provide norms for evaluating dogmatics. Dogmatics and preaching should recover the mutual relationship providing mutual health. By doing so, authority and power of pulpit will be recovered while education and research in the seminaries will be renewed. Establishing a proper relationship anew between the two will be a starting point for renewing both of them.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realize the pivotal importance of doctrinal preaching as a means to fulfill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dogmatics and preaching.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it is required to carefully categorize the types and methods of the Reformers' preaching, which had been age-old tradition and treasured heritage in the reformed church. At the same time, it should be reminded that we need to make ourselves ready in training for efficient preparation of doctrinal preaching relevant for today's reality. The revival of doctrinal preaching will practically unify theology and preaching, and the seminaries and the church. By doing so it will provide an excellent opportunity to overcome crises facing today's church.

Keywords | dogmatics, preaching, the unity of theology, doctrinal preaching.

들어가는 말

설교에 신학이 필요한가? 이 질문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너무도 자명한 원리에 대한 불필요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대 교회 강단의 현실을 바라볼 때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고 또한 문제가 되어야만 한다. 신학과 설교의 올바른 관계를 확립하는 문제는 교회의 오래된 신학적 과제인 동시에 여전히 온전히 풀지 못한 오늘의 숙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캐나다 신학교협회 문제연구 자문위원회"(The Issues Research Advisory Committee of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의 주관으로 수년간 신학교육의 본질과 문제 그리고 개선에 대한 연구를 시행한 바 있다. 그 자문위원회의 의장 보고서에 자신들의 모든 연구과정에서 반복하여 제기 되어진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바로 신학교육에 있어 전통적 과목과 실천적 적용 영역 사이의 통합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한 예(例)로서 "신학과 설교"를 지적하였다.[1]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설교에 신학적 기초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 주며,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회에서의 설교 준비와 신학교에서의 신학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필요성을 "신학 없는 설교"로 인한 현대 교회의 위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1) Millard J. Erickson & James L. Heflin, *Old Wine in New Wineskin : Doctrinal Preaching in a Changing World* (Grand Rapids: Baker Books, 1997), p.56.

1. 현대 교회의 신학과 설교의 위기

대학교 학부과정 신학과 신입생 면접을 할 때, 우문현답을 기대하며 간혹 "앞으로 목회를 할 것인가? 신학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다. 대부분 학생들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지만, 사실 바라는 대답은 "두 가지를 다 하겠습니다" 이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해야 하고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도 목회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 면접할 때는 "설교를 잘하기 위해 신학을 계속하려고 합니다"는 바람직한 대답을 듣기도 한다. 설교와 신학은 분리할 수 없는 유기적 관계를 가진다. 설교자가 된다는 것은 지속적인 말씀의 연구자 곧 신학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 신학과 목회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딤전3:15)로 선언하였다. 이것은 교회는 진리의 청지기로서 그 진리를 고백하고 상고(詳考)하며 적용해야 하는 신학적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회의 사명에 근거하여 오래 전부터 목회자들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연구하고 선포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진리의 중매인"(truth-broker) 또는 진리에 정통한 실력자들로서 신학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2]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전파하는 자와…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2) David F. Wells, *No Place for Truth* (Grand Rapids: Eerdmans, 1993), p.253.

(딤전2:7)고 말함으로써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사역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2:2)고 말함으로써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교훈할 수 있는 신학적 교육의 능력을 갖춘 목회사역을 명령하였다. 바울은 디도에게도 감독의 자격을 말하면서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딛1:9)고 한 것은 목회자는 건전한 교리를 유능하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반대하는 자들을 능히 변박할 수도 있는 신학하는 사람이어야 함을 교훈한 것이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교훈을 따라 어거스틴(Augustine)은 히포의 감독 곧 목회자였지만 가장 위대한 교부 신학자였다.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의 신학 교사들도 목회자들이었고, 교회의 설교자들도 신학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루터는 「대교리문답」(1530)에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교사인 동시에 설교자이다"라고 하였다.[3] 「제네바 아카데미」의 신학 교사(Doctor)였던 칼빈은 제네바 샹 피에르 교회와 스트라스부르크 교회의 설교자였고, 성찬론 등을 둘러싼 신학논쟁의 한 축을 이루었던 종교개혁자 츠빙글리도 츄리히의 흐로스민스터 교회의 목회자였다.[4] 그 외에도 수많은 예들을 통해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부흥하던 시대에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곧 신학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근대 사조들의 영향으로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진리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점차 축소하거나 망각해 가고 있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소비문화와 시장경제 논리의 영향으로 교회의 사명과 목회자의 역할에 대한

---

3) Martin Luther, *Weimar Ausgabe*, 30.1.126.
4) Cf. Timothy George, *Theology of the Reformers* (Nashville: Broadman Press, 1988), pp.53-56.

급격한 변화가 요구되었다. 교회는 본래의 신학적 비전과 사역을 뒷전으로 하고 소위 시장분석에 의한 회중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급급하게 되었다. 목회자는 신학자라기보다는 임상 치료사와 경영인의 역할을 요구받게 되었다. 교회도 더 이상 "신학적 시도를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체"로 간주되지 않고 또한 신학적 비전이 실현되는 최우선적인 환경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다. 신학은 전문적 영역의 과제로서 신학대학의 고유한 과제로서만 이해되어지고, 교회 안에 학문적 재능을 가진 자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이름 있는 학술기관이나 신학대학으로 차출되어 갔다. 신학교에서 목회 후보자들의 목회 사역을 위한 훈련은 전문 신학자들에만 맡겨졌고 결국 목회사역과 신학사역의 바람직하지 못한 괴리와 분리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신학은 점차 난해한 이론으로 변하고 교회생활은 신학적 반성과는 점차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 마침내 교회의 예배와 설교에서도 신학은 외면을 당하게 되었다.

2) 신학과 설교

이처럼 종교개혁의 전통을 떠나 근대적 발상에 의해 목회자와 신학자의 역할을 분리하는 것은 특별히 교회의 설교를 퇴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데이비드 웰즈(David Wells)가 「신학 실종」(No Place for Truth)이라는 책에서 설교를 위한 저명한 신학저널에 게재된 200편의 설교를 분석한 놀라운 결과를 소개하였다. 약 80% 이상의 설교가 하나님의 본성과 특성 그리고 의지에 대한 신학적 반성(성찰)과는 무관하게 현대 강단에서 유행하고 있는 인간중심의 시대적 정신(Geist)으로 부터 그 내용과 의미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이었다.[5] 현대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 보다는 오히려 세속문

화의 포로가 되어 가고 있으며, 현대 설교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 대신에 인간 자아에 대한 관심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6]

게리 죤슨(Gary L. W. Johnson)은 "신학이 여전히 중요합니까?"(Does theology still matter?)는 논문에서 현대 설교자들에 대해 논평하기를 "복음주의 교회 안에 있는 놀라울 정도의 신학적 무지와 신학을 거부하는 점증하는 편견"을 발견한다고 탄식하였다.[7] 그는 계속 목사들에게서 경영학과 심리학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점차 신학적 내용을 배제한 설교의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목사들의 그러한 반신학적 정서는 마치 병원의 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지식과 정보를 가장 덜 중요한 항목으로 분류해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였다.[8]

루스터(E. C. Rust)도 "신학과 설교"(Theology and Preaching)라는 논문에서 신학과 교리를 무시하는 설교자가 "나는 이 모든 교리적 내용을 믿지 않는다. 나는 신학을 설교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만을 설교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의사가 "나는 이 모든 해부학과 생리학을 믿지 않는다. 나는 돌팔이 의사로서 가짜 약물을 밀매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목회자가 건강한 신학적 사고에 의해 조명을 받고 건전한 교의학적 주장에 의해 뒷받침 받지 못하면, 사실상 그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유능한 설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역설하였다.[9]

---

5) David F. Wells, *No Place for Truth*, p.252.

6) David F. Wells, *God in the Wasteland: The Reality in a World of Fading Dreams* (Grand Rapids: Eerdmans, 1994), pp.118, 120., p.139: "인간 자아에 의해 쫓겨남을 당하고 그 자아만을 모든 역사와 의미의 원천으로 만듦으로서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로부터 사라져 가고 있다."

7) Gary L. Johnson, "Does Theology Still Matter?", *The Coming Evangelical Crisis: Current Challenges to the Authority of Scripture and the Gospel*, ed. John H. Armstrong (Chicago: Moody Press, 1996), p.58.

8) *Ibid.*, 59

9) E. C. Rust, "Theology and Preaching," *Review and Expositor* (1955, Apr.), 146.

3) 교리 설교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도 여전히 반신학적 또는 반교의적경향이 만연해 가고 있다. 사실상, 포스터모더니즘 시대에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사고 속에는 교리적 설교가 자리 잡을 여지가 없으며, 성경의 중심 사상에 대한 이성적 설득과 논증에 근거한 변증적 설교에 대해서는 심지어 반감을 표하기도 한다.

밀러드 에릭슨(Millard J. Erickson)은 「오래된 포도주와 새로운 가죽 부대」(Old Wine in New Wineskin)라는 책에서 이러한 반교리적 동향의 배경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사상적 요인들을 잘 분석하고 있다. 간략히 먼저 "문화적 요인"으로 자연세계의 감각적 지각에 의한 검증이 불가능한 주제를 거부하는 "자연주의"(naturalism), 영원히 모든 사람에게 참된 절대적 진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상대주의"(relativism), 미시적 사고에 의해 나무는 볼 수 있지만 통합적 이해에 의한 숲을 볼 수 없는 "원자주의"(atomism) 등을 말하였다. "종교적 요인"으로는 종교적 관용과 종교적 사상의 혼합을 주장하는 "종교적 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와 관용주의의 온상인 "글로벌화"(globalization)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기독교적 요인"으로 "목회 실용주의"(pragmatism), 느낌 지향적 신앙 풍조, 교리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무지와 거부감 등을 예로 들었다.[10]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사상과 풍조에 항상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교회 안의 새로운 비성경적 풍조를 형성해 가고 있다. 이러한 설교 현장의 상황 변화 즉 청중이 처한 급변하는 문화 정신적 상황은 목회와 설교에 새로운 도전과 위기를 안겨주고 설교자들의 즉각적인 반응과 변화를 요구한다. 나아가 설교의 방향과 형식 그리고 내용에까지 큰 영향을 준다.

---

10) Millard J. Erickson & James L. Heflin, *op.cit*., pp.39-57.

에릭슨이 앞서 말한 반교리적 요인들 때문에 자연히 많은 설교자들도 오류에 빠지는 위험보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소외의 위험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 사실상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일반적으로 교리와 신학은 오히려 현실 목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오늘날 진보주의와 복음주의의 모든 강단에서 교리 설교 또는 교리적 원리와 연관된 설교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진보주의 강단은 복음의 본질적 내용을 무시하고 경험을 강조하여 신앙의 권위적 규범 즉 교의적 원리를 상실하였고, 복음주의 강단도 감정을 강조하여 신앙의 핵심적 강조를 찾아보기 어렵고 감성적 표어와 수식어를 남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선적으로 목회 현장의 실제적 문제에 대해서 눈 감아 온 신학연구와 신학교육에 책임이 크다. 신학자들이 교회의 생활과 복음선포(설교) 등에 대한 신학의 실천적 적용을 외면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대 교회의 위기는 이러한 "신학 없는 설교" 또는 "설교 없는 신학"에 의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교회 강단과 신학교의 교단에서 설교와 신학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확립해야 한다.

2. 교의학과 설교의 관계

1) 신학의 유기적 통일성

신학을 여러 가지 분야로 분류하는 것은 사실상 학문적 편의에 의한 구별일 뿐이고 신학자체는 분리할 수 없는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인 여러 분야로 나누워 연구할 수 있지만, 그것도 역시 전체를 향한 개별성의 탐구이어

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신학의 모든 분야는 신학의 통일성이라는 지평에서만 각자의 개별적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각 신학의 목적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신학은 항상 여러 전문 분야로 나눠서 연구한 것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의 신학으로 모아야 하는 공동의 과제와 사명을 안고 있다.[11]

교의학은 다른 신학 학과목 뿐 아니라 다른 일반학문의 문제까지도 파고드는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석의신학과 교회사의 조력을 받아 봉사신학의 방향과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신학연구에 있어 복음과 교회를 위한 공동전선을 주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특히 교의학은 봉사신학을 위해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봉사해야 할 것인가를 확정해주는 기능을 행사할 뿐 아니라 교회가 선포할 내용을 제공하는 목회적 직무까지 수행해야 한다.[12]

봉사신학은 교회의 실제적 생활과 사역들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비평적 기능을 통해 교의학자로 하여금 교의학적 개념을 다듬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도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목회 현장의 광범위한 실제적 경험들에 대한 논의와 대답을 제공하고 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교의학의 방향과 방법에 건설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13] 이와 같이 신학의 유기적 통일성 안에서 봉사신학은 교의학에 튼튼한 기초를 두어야 하고,

---

11) Cf. H. 슈뢰어, 「신학이란 무엇인가?」, p.323. "개체 전공과목은 서로서로를 위한 보조학문이 되며, 전체로서의 신학을 위해 역시 보조학문이 되는 것이다."

12) 교의학이 봉사신학에 그 방향과 영감을 제공하는 관계는 유럽 신학교에서 봉사신학의 많은 교수들이 교의학 박사학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실제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cf. Hendrikus Berkhof,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Dogmatics* (Grand Rapids: Eerdmans, 1985), p.53.

13) Hendrikus Berkhof, *op.cit.*, p.54.

교의학은 봉사신학으로부터 생동적인 추진력을 공급 받아야 한다.

모든 신학의 본래 목적이 영혼 구원과 교회 봉사를 위한 실제적인 것(scientia practica)이라면, 그 모든 신학 이론이 교회의 생활과 선포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만 하느냐를 연구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신학 과목들은 항상 이러한 실천적 지평을 상실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신학의 이러한 실천적 적용에 대한 학문적 정리와 교육을 소홀이 했기에 신학이론과 목회현장 사이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또한 교회는 많은 문제의 와중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대 교회의 위기는 신학의 유기적 통일성 안에서 교의학과 설교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확립하고 정립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교의학과 설교의 연속성

교의학과 설교는 어떠한 상호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기여하는가? 교회에서 교의학과 설교는 신학의 유기적 통일성과 신학 연구과정의 연속성 안에서 사실상 하나의 연속선상의 행위로 나타난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설교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신학에서는 "반성적"(reflective, 학문적 성찰)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즉 하나의 동일한 행위의 두 측면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를 말할 수 있을 뿐이다.[14]

---

14) 물론 설교에서 신학이 반드시 서로 경계선을 항상 같이 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우리가 신학과 설교의 연속성을 인정한다할지라도 그 둘을 단순히 동일시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 차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구두로 이루어지는 선포적 설교와 이론적 성찰과 반성을 통한 학문적 신학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교의학자가 설교자가 강단에서 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설교와 신학은 상호 구분을 유지하기는 하되 최소한 같은 일을 다른 방식으로 행한다고 할 수 있을

교의학과 설교는 상호 교류하는 호혜적인 관계 속에 있다. 교의학을 통해 잘 설교할 수 있고, 설교를 통해 교의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교의학을 통해 설교자는 보다 분명하고 책임 있는 선포를 할 수 있고, 설교를 통해 교의학자는 보다 건강한 교의 형성과 발전을 기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개혁자들의 전통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설교와 교의학의 임무를 엄격히 분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구분할지라도 순전히 동일 사역에 대한 실천적, 기술적, 방법적 구분일 뿐이다.

상호관계의 중요성을 말한다면 설교는 교의학의 심장과 영혼이고 교의학은 설교의 지성과 양심이다. 설교자는 최소한의 좋은 설교를 위해 교의학적 사고와 반성에 참여해야 한다. 비록 교의학자 자신은 매주일 마다 설교 강단에 오를 수 없을 지라도 최소한의 좋은 교리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항상 설교의 사명을 마음속에 품고 설교를 목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반면에 설교자가 설교자이기만을 바라고 교의학적 사고를 교의학자에게만 맡긴다면, 그는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없다. 즉 지성과 양심이 없는 설교자가 될 뿐이다. 또한 교의학자가 교의학자이기만을 바라고 교회의 실천적 임무에 대한 관심은 목회자에게만 맡긴다면, 그는 좋은 교회 교사는 될 수 없다. 즉 심장과 영혼이 없는 교의학자가 될 뿐이다.

설교를 위한 교의학

교의학은 그 복음선포의 실제를 위한 감독(supervision)과 보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즉 설교를 위한 교의학의 임무는 소극적으로 성경과 설교 사이에서 교회의 설교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하며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목적과

것이다.

기준에 적합하게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를 성경적으로 살피는 것이다. 교의학은 소극적으로 설교를 단순히 감시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설교를 위한 일종의 규범을 제공하고 설교자들을 교육하고 설득하는 일까지 감당해야 한다. 설교자가 회중에게 전달해야할 진리의 내용을 단순히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자가 바로 자신을 살리는 진리로서 받아 전달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그리고 교의학은 성경에 기초하여 분명하고도 책임 있는 성경적 가르침을 설교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설교자의 임무는 항상 거듭하여 복음 선포의 목적이 무엇이며, 선포되어져야 하는 참된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의학적 질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설교자는 복음 진리를 성경 본문 안에서, 성경 본문에 의해, 그리고 성경 본문에 충실하게 선포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설교자의 이러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의학은 성경 주석과 복음 선포의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의학은 설교 그 자체에 대한 반성적 기능을 통해서 교회의 언어와 생활을 검토하고 교회의 복음선포를 감독하는 교회의 "자기검증"(self-test)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교의학은 교회를 가르치는 그 본질적 임무와 목적 그리고 기능에 따라 어떤 의미에서 설교자를 보호하는 목회적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어려움과 공격 받기 쉬운 위험에 처한 설교자에게 목회적 관심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명 완수를 위해 자신을 훈련할 의도가 없고 자신의 의무를 완성하기 위한 그 어떤 전문적 지원 수단도 없는 설교자들이 보다 신중하고 건설적인 설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준비시키는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설교자는 개별 설교에서 특정한 본문에 기초한 개별적 주제

또는 단편적 진리를 말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설교자는 그 개별적인 것에서부터 그리고 개별적인 것 안에서 교회에 위임된 복음 진리의 전체성 또는 통일성을 유지하는 교의학적 연구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수면 위에 보이는 작은 얼음 조각일지라도 그 수면 아래의 큰 빙산이 함께 흘러가면서 안정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듯이 설교자의 개별 설교의 배후에는 항상 이러한 전체성에 대한 교의학적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참으로 선포되는 곳에서는 부활도 선포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설교되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도 설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 개별적인 것에서 전체적인 것에 이르려는 시도와 노력은 교의학의 중요한 관심과 임무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교의학적 반성의 산물인 교리는 복음선포의 완전성과 충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즉 교회가 반쪽 진리를 믿거나 설교하지 않도록 해 준다. 그래서 에벨링(G. Ebeling)은 "신학은 설교자들을 위해 설교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 한 것이다.[15] 교의학은 설교자에게 성경의 모든 본문들을 항상 기독교 교리의 핵심 또는 복음 진리의 전체성에 연결시킬 것을 요구함으로써 설교를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행하는 것에 관한 생각(신학적 반성) 없이 가볍게 수행하기에는 너무도 위험한 것이기 때문이다.

교의학을 위한 설교

설교는 교의학적 연구를 이끌고 가는 추진력이며, 참된 교의학적 결론에 이르게 하는 영감이다. 설교는 교리 형성이 가능하게 되는 매개이며 또한 그 교리의 정당성이 평가되는 표준이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서 죄의 교리가 어떻게 형성되고 평가될 수 있는가를 살펴 볼 수 있다. 교회 즉 목회

15) G. Ebeling, *Word and Faith* (Philadelphia: Fortress, 1963), p.474.

현장에서 창세기 3장에 근거하여 설교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요구에 의해서 그 성경의 분명하고도 책임 있는 가르침을 파악해야할 교의학적 연구의 필요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그 필요가 동기가 되어 마침내 죄의 교리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처럼 형성된 "그 교리가 설교자의 임무 수행에 적절한가?" 즉 "그 교리가 설교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의해 그 교리의 정당성이 평가되어 질 수 있다. 에벨링의 말을 역으로 적용하여 "설교는 신학자를 위해 신학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16] 설교와 마찬가지로 신학도 성경과 기도와 설교의 훈련 없이 이행하기에는 머무도 위험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교리는 설교자의 직무 수행을 위한 필요에 의해 형성되고, 설교는 설교자의 임무 수행을 위한 성경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가르침을 교의학적 연구에 의해 확보할 수 있다. 동시에 교리는 설교의 생명력이고 비판하고 보호하는 감독이며, 설교는 교리 연구의 추진력이고 교리 평가의 기준이 된다. 우리는 이러한 점들에서 설교와 교의학의 상보적 호혜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 교회의 설교와 신학교의 교육이 과연 이러한 상보적 동반자의 관계 속에서 교의학과 설교가 각기 감당해야할 임무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우리 신학의 오래되고 새로운 과제인 신학과 설교의 융합이 교회의 강단과 학교의 교단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의학과 설교의 통합을 가장 실제적으로 또한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교리설교(doctrinal preaching)의 시행에 새로운 관심을 모아야 할 것이다.

---

16) Thomas H. Troeger, "A Poetics of the Pulpit for Post-Modern Times," *Intersection: Post-Critical Studies in Preaching*, ed. R. L. Eslinger (Grand Rapids: Eerdmans, 1994), p.43.

3. 교리설교의 실제와 전략

교리설교는 설교학의 정수이며 절정이다. 그러나 현대의 세속적 사조의 영향과 교회안의 타협(synthesis)의 망령에 의해 오늘날 교회의 강단에서 교리설교는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있다. 이처럼 교리설교를 기피하는 실제적 이유들과 그것들에 대한 답을 다음과 같이 우선 간단히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 교리설교는 너무 논쟁적이어서 분리주의라는 부정적 인상을 준다고 한다. 그러나 세상에 평화의 왕자로 오셨지만 "세상에 검을 주려왔노라"(마10:34)고 하신 주님과 바리세인과 논쟁을 벌이신 예수님(마23장)을 정죄할 수 있는가? 2) 교리설교는 너무 전문적이고 난해하여 지루하다고 한다. 물론 설교자는 학자연하는 현학적인 자세를 버려야 하지만 성경의 진리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려는 "환원주의"(reductionism)에 빠져서도 안 된다. 회중의 상식적 무지를 핑계로 신학적으로 정확하고 상세한 설교를 회피하려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교사로서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일 수도 있다. 3) 교리설교는 현실 관련성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신학적 연구의 현실 관련성은 항상 들어나는 것은 아니다. 기독론을 다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의 교리는 매우 난해하고 사변적인 것처럼 보일 수 도 있다. 그러나 교회가 이단에 직면할 때 비로소 그 교리의 현실 유용성이 들어나는 것처럼 교리는 때 따라 그 주요한 용도가 즉각적으로 들어나지는 않는다. 교리와 신학은 집의 지붕보다는 기초와 같은 기능을 가진다. 기초는 중요하고 본질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항상 들어나 보이는 것은 아니다.

1) 교리설교의 중요성

교리설교는 개혁교회의 오랜 전통이며 유산이다. 교리설교는 가장 위대한 설교자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바울은 목회서신인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에서 목회사역을 위한 교훈을 담고 있다(딤전4:6, 딤후 4:1-4, 딛1:9, 2:1, cf.딤전1:3, 4:1, 13, 5:17, 딤후3:16, 딛2:7). 여기서 바울이 반복하여 강조한 것은 디모데와 디도의 목회에 있어 "바른 교훈"(didachē, doctrine) 즉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사역의 중요성이었다.[17)]

칼빈도 제네바 교회의 목회사역의 중심에 교리설교를 두었다. 특히 예배의 중심에 교리설교를 두었고, 그 교리설교를 위해 교리문답서(*Catechismus*)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는 "교리"(*doctrina*)를 교회를 다스리고 생명을 유지하여 활동하게 함으로서 교회되게 하는 정신으로 이해하였다. 바로 그러한 "하늘의 교리"(*coelestis doctrinae*)를 전달하는 것을 "설교"(*praedicatio*)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회의 임무는 그 교리를 해명(*explicatio*)하고 해석(*interpretatio*)하며 적용(*applicatio*)하는 올바른 교리설교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보았다.[18)]

청교도 목사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설교의 방향과 주제를 소개한 후에 그 교리의 제목 하에 본문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였다. 팩커(J. I. Packer)는 교리설교에 대한 청교도들의 접근 방법과 그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17) Didachē와 Kerygma 이 두 단어는 신약에서 동일한 사건을 언급하기 위해 상호교체적으로 사용되었다. cf. Robert Mounce, *The Essential Nature of New Testament Preaching* (Grand Rapids : Eerdmans, 1960), pp.40-43.

18) 정일웅, Calvin의 교리교육과 교육목회, 신학지남, 1990(봄), pp.64-65.

좋은 해석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좋은 신학자가 되어야만 한다. 신학-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진리-은 하나님께서 성경 본문 속에 집어넣으신 것이면, 신학은 성경본문으로부터 설교자가 이끌어 내야만 하는 것이다. '교리를 설교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청교도의 대답은 '아니! 그 외에 또 다른 무엇을 설교할 것이 있나요?' 이었다. 청교도 설교자들은 가장 난해한 신학일지라도 그것을 강단에 가져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또한 남녀들이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 자신들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렇게 하고 쉽지 않는 것을 불성실의 표로 단정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19]

교리설교는 반드시 위선자들을 싫증나게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양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교리설교뿐이다. 설교자가 해야할 일은 불신자들에게 신앙을 선포하는 것이지 예능꺼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다시 말하면, 염소를 즐겁게 하는 일보다는 양을 먹이는 일이다.[20]

2) 교리설교의 방법

모든 설교는 좋은 계획과 방법을 따라 준비되어야 한다. 교리설교는 그 특수한 성격 때문에 더 많은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성경의 보다 광범위한 내용에 대한 신학적 반성과 자각을 요구할 뿐 아니라 효율적인 작성 방법과 전달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

19) J. I. Packer, *A Quest for Godliness : The Puritan Vision of the Christian Life* (Wheaton : Crossway Books, 1990), pp.284-285.
20) *Ibid.*, p.285.

종교개혁의 통찰력에 근거하여 영국 청교도들은 성경적인 기초를 가진 신학적으로 책임 있는 설교의 유형을 개발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영국 성직자들이 즐겨 사용한 수사학적 수식에 반대하여 전달자보다는 설교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는 소박한 형태의 설교를 발전시키려고 하였다. 당시 설교자들에 대해 칼빈은 "다만 자신들의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장황한 수사를 늘어놓지 말아야 한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전달자의 음성을 통해 전해져야 한다.…교리에 그러한 신적 능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교리는 차갑게 식어버릴 것이다"라고 경고하였다.[21]

퍼킨스(William Perkins)는 청교도 전통의 중요한 안내서 중의 하나인 「The Arte of Prophesying」(1592)에서 자신의 설교 방법론에 있어 네 가지 기본 규칙을 이렇게 요약하였다.

> 거룩하고 유일한 설교방법의 순서와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정경인 성경으로부터 그 본문을 분명하게 읽는 것, 2) 성경 그 자체에 의해 읽어야할 성경에 대한 지각과 이해를 부여하는 것, 3) 그 자연스러운 의미로부터 교리의 몇 가지 유익한 의미들을 모우는 것, 4) 만약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올바르게 수집된 그 교리들을 단순하고 평이한 말로써 사람들의 삶과 태도에 적용하는 것이다.[22]

퍼킨스가 참된 설교 방법은 1)성경에 대한 신중한 읽기와 2)성경 본문에

---

21) John Calvin, Letters of John Calvin, ed. Jules Bonnet (Philadelphia :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1858), 2:190-191; *Comm*. John 17:1. cf. Inst., 1.8.1. : "이제 우리는 세련되지 못하고 거의 허술할 정도의 단순성 그 자체가 어떤 웅변보다 더 존경심을 갖도록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성경의 진리의 힘이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에 말의 기교가 필요 없다는 것 외에 또 무슨 결론을 내려야 하겠는가?"

22) Ian Breward(ed.), *The Works of William Perkins* (Appleford : Sutton Courtenay Press, 1970), p.349.

대한 적절한 해석을 하고 3)나아가 교리적 해설과 4)적절한 적용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교리적 해설에 관하여 퍼킨서는 교리적 의미가 담겨진 본문들을 교리가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과 다만 암시되어 있는 것으로 구별하였다. 전자의 경우에는 설교자의 임무가 노끈을 풀어내는 면직공의 일과 같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성경을 성경과 비교하여 구속사의 전 범주 안에서 그 본문의 적절한 의미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 설교자의 주관적인 환상을 본문에 강요하지 않고 성경의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의미로부터 교리의 유익한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을 말한다. 특히 퍼킨서는 4번째 단계인 올바른 적용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설교가 완성될 수 없다고 보았다. 설교의 목적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교자의 박식함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다. 따라서 퍼킨서는 "지나친 에술적 기교와 변설 그리고 잡다한 독서로 꾸며진" 설교를 비판하였다.[23] 설교자가 본문으로부터 수집된 교리들을 영향력 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청중을 이해해야할 필요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본문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처럼 회중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참으로 청중을 위로하고, 책망하고, 격려하며, 마침내 구원에로 초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교도들에 의해 개발된 교리설교의 유형과 방법이 설교 준비를 위한 중요한 원리적 그리고 방법적인 유익을 주고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반드시 그러한 방법과 순서를 그대로 지켜야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전통에 유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리설교를 잘 준비할 수 있겠는가를 살펴보자.

---

23) *Ibid.*, p.327. cf.John R. W. Stott, Between Two Worlds : The Art of Preaching in the Twentieth Century (Grand Rapids : Eerdmans, 1982), p.92 "본질적인 비밀은 어떤 기교를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신념들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학이 방법론보다 중요하다.…기술자들은 우리를 연설가들로 만들 수 있을 뿐이다. 만약 우리가 설교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신학이야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1) 교리설교의 재료는 교리가 아닌 성경 그 자체이다.

모든 설교의 출발점은 성경이다. 교리도 성경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만일 우리가 성경 본문을 뒤로 하고 교리를 앞세워 먼저 다루다 보면 우리의 교리적 또는 신학적 체계를 성경 본문의 의미로 강요하거나 교리의 근거를 얻기 위해 그 본문의 자연스러운 해석을 조작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성경 본문 자체의 단순하고 자연스럽고 풍부한 의미는 가리어지고 그 교리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도 없게 된다. 따라서 교리가 아닌 성경 본문 자체를 분석하는 것에 우선 초점을 맞추어 그 본문으로부터 교리가 자연스럽게 인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구절에만 기초한 설교를 가능한 피하고 그 구절의 문맥 안에서 교리를 설교해야 한다. 만일 문맥을 무시하고 한 구절로부터 교리를 이끌어 내면 그 교리의 바른 의미를 왜곡하기 쉽고 성경을 오용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본문을 사용하면 설교자 자신부터 심란하여 청중들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다. 한 교리설교에서 그 교리와 관련된 모든 성경구절들을 한 번에 다 포함해서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한 본문이 그 교리를 충분히 분명하고 상세하게 설명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된 다른 부수적인 본문들을 추가하여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핵심적인 진리 명제와 목적을 찾아내어야 한다.

설교를 위한 성경 해석에서 한 문장으로 그 본문의 핵심을 밝히 들어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설교자도 교리설교를 위한 관련 성경 본문과 씨름하여 하나의 분명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그 본문의 진리를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설교자가 청중에게 전달하기 전에 스스로 그 성경 본문에 나타난 진리를 완전히 소화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 핵심적인 진리 명제는 단순히 교리가 아닌 성경 그 자체에 기초해 있는 영원한 진리임을 분명히

할 수 있고, 한걸음 더 나아가 그 교리를 성경적으로 더 건전하게 만들어 준다.

모든 설교는 하나의 목적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설교자는 그 설교의 전개 과정에서도 그 목적에 계속 유의해야 한다. "왜 너는 이 특별한 메시지를 설교하는가? 사람들에게 단순히 이 교리에 대한 지식을 전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그들이 그 성경 본문의 교리적 진리와 일치하게 살기를 원하는가?"를 질문하면서 그 교리를 청중들의 매일의 삶에 연결시켜야할 필요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설교의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행위를 가져오는 것이다.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리대로 살아야 한다. 교리설교에 대한 중요한 반대 중에 하나가 그것은 지식에 머물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리설교는 성경의 진리에 대한 특별한 순종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항상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다양한 양식과 구조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교리설교는 주로 교훈적이며 연역적이어서 다소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설교 양식과 구조를 재정리한다면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고 설교의 맛을 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귀납적 접근 방식을 따라 목사가 성경 본문을 연구할 때와 똑 같은 과정을 뒤따라오게 함으로서 교인들도 자연스럽게 똑같은 깨달음과 결론에 도달하게 할 수 있다. 즉 목사와 함께 진리의 광맥을 따라 진리 탐험 여행을 떠나는 진지함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설화적 설교가 교리적 진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높이 들어 올리는 장면에 이르기까지의 드라마를 생동적인 이야기로 끌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구원의 교리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그 양식과 구조 배열을 다양화함으로 청중의 관심과 기대를 계속 붙들어둘 수 있는 것이다.

용어 사용에 있어 생동감 있게 풀어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즉 "그리스도의 선재성"을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천국의 회랑을 함께 거닐며 의논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세상이 구세주를 맞이해야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풀어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전달 방식을 도입하되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 설교 중에 개요를 정리해 주고, 설교 후에도 요약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림과 만화를 이용하여 추상적 개념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울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신생아를 기쁨으로 안고 있는 아버지의 사진을 요한복음 3장 16절의 요지와 연결하고, 우유 빛 가득한 은하수의 영상은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 실천적 적용에 힘써야 한다.

좋은 주해설교는 관련성 있는 적용이 수반되어 일어나야만 한다. "어떻게 이 교리가 내 삶에 영향을 끼쳤느냐"에 대해 정직하게 답할 수 없을 때, 그 설교는 하지 말아야 한다.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설교하는 것과 그 성령께서 내 자신의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만약 설교자 자신의 삶 속에서 그 교리의 실제적 적용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진리가 청중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교리는 적용이 가능하다. 바울도 디도의 교훈(딛2:2-5)이 자기 회중들에게 그들의 매일의 삶을 위한 특별한 안내를 제공하기를 기대하면서 디도에게 교리설교를 명령한 것이다. 바울은 전형적으로 각 서신을 인사로 시작하여

교리적 교훈에 이르고, 그 후에 그 교리를 다양한 환경에 적용시켰다. 그는 신학적 추상개념의 최상층에 성경적 진리를 감추어 두기를 거절하였다. 자신의 메시지를 그가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의 관심 속에 뿌리내리기를 갈망하였기 때문이다.

성경적 설교는 교리적 주해로부터 삶의 교훈에로 옮겨가서 간곡히 타이른다. 왜냐하면,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적용 없는 설교는 지성을 섬길 수 있을 뿐이지만, 적용 있는 설교는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봉사를 요구하기에 이른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성을 향해서 뿐 아니라 의지와 감정을 향해 설교해야 한다. 사람들을 의지적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지성적으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고, 또한 감정적으로 그 진리를 그들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간절한 필요를 느끼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정서적인 면에서 설교자 자신이 그 진리를 실제로 체험한 자로서 뜨거운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

나가는 말

오늘 우리의 설교와 신학의 위기는 목회자의 “신학 없는 설교”와 신학자의 “설교 없는 신학”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개혁주의 교회의 역사적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학과 설교의 통일성과 연속성이 깨어짐으로써 오늘 우리 교회의 혼란과 위기는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신학 없는 진보주의 강단은 경험과 이성을 강조하여 신앙의 본질적 규범과 원리를 상실해 가고, 신학 없는 복음주의 강단도 감정과 정서를 앞세우면서 신앙의 핵심적 강조를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신학교의 연구와 교육은 목회현장의 실제적 문제를

간과하고 교회를 위한 신학의 실천적 적용을 게을리함으로써 이미 신학적 리더십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점차 교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교회와 신학교의 위기 속에서 교의학자와 설교자는 상보적인 호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힘써 견지해나가야 한다. 교의학은 설교를 감독하고 보호해야 하며, 설교는 교의학의 추진력과 평가기준이 되어야 한다. 교회를 위하여 교의학과 설교는 항상 서로를 어렵게 만들면서도 건강하게 세워주는 동반자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할 때, 교회 강단의 권위와 능력이 회복될 수 있고 신학교의 교육과 연구가 쇄신될 수 있을 것이다. 교의학과 설교의 올바른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야 말로 오늘 우리의 교회와 신학교를 새롭게 하는 근원적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교의학과 설교의 상보적 관계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교리설교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반성이 필요하다. 먼저 개혁교회의 오래된 전통과 소중한 유산이었던 개혁자들의 교리설교의 유형과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 져야 한다. 동시에 현실 적합성을 가진 교리설교를 위해서 효율적인 작성 방법의 훈련과 전달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와 노력도 필요하다. 교리설교의 새로운 부흥은 신학과 설교 그리고 신학교와 교회의 실제적인 융합을 실현함으로써 현대교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